통합치료연구 제9권 1호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017. Vol. 9 No. 1. 5-26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윤은주* · 심혜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부모세대에 친숙한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부모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기초로 개발 및 수정 보완하였으며, 주 1회, 회기 당 90분, 총 6주 동안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는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와 함께 가위바위보, 쌀보리, 실뜨기, 공기놀이와 같은 손놀이, 노래와 함께하는 다리셈, 사고력이 향상되는 스무고개, 오목놀이, 재료의 다양성으로 창의력이 향상되는 제기차기, 구슬치기, 투호놀이 그리고 딱지치기와 같은 전통놀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만족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족이 함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게임 규칙을 만들고 타협하는 활동이 가능한 전통놀이를 활용하여 한국 정서에 부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부모-자녀 간 소통과 관계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전통놀이,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

* 본 연구는 윤은주(2016)의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심혜원(hwshin@kcgu.ac.kr)

■ 게재 신청일: 2017년 7월 14일 ■ 최종 수정일: 2017년 8월 08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8월 11일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자녀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한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모델이며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성격, 생활태도 그리고 도덕성 등의 가치관을 배우고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되어 또래집단을 비롯해 대인관계를 맺을 때 본인과 타인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며, 다양한 삶의 국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quality)과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최지희, 2002). 가족 내에서 상호작용은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한다.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문제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풀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희행, 2012). 반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서적 부적응 및 대인관계 문제행동이 증가하며(고상미, 2000; 이상수, 2001)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이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정서와 성격형성,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 분야에서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한 가족 간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감소되고 있다(현지애, 2007).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의 가정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기회가 점점 부족해지고 TV, 그리고 인터넷 핸드폰의 발달로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며, 이혼율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잦은 이사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등 불안정한 환경적 요인은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년간의 종단연구에 의하면, 부모-자녀 상호작용 패턴이 아동의 파괴적 행동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핵심요소가 된다고 보고된다. 인간 행동의 상호교류 모델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파괴적 행동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어려움 간에는 상호 주고받는 경로가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속된다(Hinshaw & Lee, 2003; Keenan, Stouthamer-Loeber, & Loeber, 2005. 이승희 2006. 재인용).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그 부모는 일반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관여와 양육 민감성이 부족한 반면에 부정적 정서, 엄하고 비일관적인 훈계, 강압적인 상호작용

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의 적대적 문제 또는 품행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의 자질 향상에 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많은 교육자와 상담사는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왔다. 이미경(2011)은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관계를 향상시켰으며, 김태희(2010)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지지를 받은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관해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안되어온 대부분의 부모교육프로그램들은 전반적인 양육기술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자녀의 자질개발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등 주로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노미경, 2003).

이러한 정보 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들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놀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Whitaker(1981)는 모든 연령층의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활용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Eeker(1989)은 가족놀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놀이 속에서 가족과 부모에 대한 감정을 재 경험할 수 있고, 선우현(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놀이를 통하여 가족의 기능과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자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증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김효선, 2011).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정서적인 상호교류의 수단인 놀이의 중요성이 부모교육과 연계 되어 보다 효율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놀이를 통한 부모교육에서 활용한 놀잇감은 부모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많으며 아이들 중심으로 구성된 놀이는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었으나 일상생활과의 연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활용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어린 시절 놀았던 경험으로 부모에게도 익숙하고 편안한 전통놀이를 제시해 부모교육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Park과 Chech(2005)는 빠르게 진행된 서구식 산업화로 인해 학업성취, 사회성 획득, 전문직 선호 등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자녀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정서적 관계와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현대의 삶이 서구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는 해도 한국인은 우리 문화에 젖어 있는 전통놀이를 통해 삶을 배우고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김미자, 최병헌(2011), 천신애(2007)는 노래와 함께하는 ‘다리셈놀이 대문놀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와 만드는 재미가 있는 ‘팽이놀이 딱지치기, 투호놀이’ 등의 전통놀이 활동의 치료적 요소가 아동의 정서지능과 창의성에 도움을 주며, 심미경, 장덕돌(2000)은 또래와

함께 하는 ‘닭싸움, 그림자밟기 얼음 땡 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신체 놀이의 치료적 요소가 있는 전통놀이를 통해 친구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친밀감이 형성되었으며, 김혜경(2007)은 전통놀이의 치료적 요소 중 ‘실뜨기 이거래 각거래’ 등의 구조화된 놀이가 ADHD 아동의 주의 집중력 향상과 지속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으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전통놀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첫째, 가족이 함께 활동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 교육은 가족이 함께 만들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정해진 규칙만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게임 규칙을 만들고 타협하는 활동이 가능하므로 새롭게 창조되는 놀이를 통해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부모상을 새롭게 느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가 함께 할 때 아동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김영숙, 2008). 둘째는 서양놀이 보다 전통놀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모는 어린 시절 함께 했던 놀이를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고 익숙한 놀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놀이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추억을 지금-여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은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만족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중심의 놀이를 통해 부모로서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전통놀이는 가족 간의 위계질서 정립,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필요성을 느끼고 이해함으로써 가족 간의 응집력, 친밀감과 유대감, 소속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개선과 더 나아가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부모가 교육 현장에서 놀이에 필요한 놀잇감을 직접 만들어 보고, 집단원과 함께 전통놀이를 실시함으로써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직접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부모에게 익숙한 전통놀이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놀이와 부모교육의 통합적 프로그램은 기존의 부모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아동중심의 매체 활용을 이용한 놀이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관계 미치는 효과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 만족도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에 효과가 있는가?

Ⅱ.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개발절차

본 프로그램 개발은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델을 기초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통놀이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포함될 활동 수집 후 자료를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아동 상담학 관련 교수 1인,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 1인, 석사과정 대학원생이과 함께 프로그램 선정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전통놀이 활동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부모교육은 학령기 자녀의 특성, 의사소통 방식, 감정 표현의 중요성, 자녀의 문제행동 등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			프로그램 개발의 하위단계
1단계	목표수립	→	① 기획 ② 프로그램 목표의 정립
2단계	프로그램의 구성	→	① 프로그램 교수 방법 ② 프로그램 교수 매체 ③ 회기별 활동, 내용, 전략 설정 ④ 프로그램의 구성
3단계	프로그램 내용	→	① 프로그램모형 재검토 ② 연구진 평가회의 ③ 프로그램 수정
4단계	프로그램 실시와 개선	→	① 프로그램 실시 : 비교집단-12명, 통제집단-12명 실시 ② 다양한 평가 : 3개 척도, 소감문, 활동하면서 느낀 점 이야기 나누기 ③ 수정

〈그림 1〉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2. 프로그램 목표와 회기별 목표와 내용

가.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은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전통놀이 활동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부모교육은 학령기 자녀의 특성, 의사소통 방식, 감정 표현의 중요성, 자녀의 문제행동 등의 이해와 수용을 통해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전통놀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부모-자녀가 각자의 역할로 바쁘게 생활하므로 가족이 상호작용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부모가 어린 시절 그들의 부모와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전통놀이를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함으로써 상호작용의 기회를 늘린다.

둘째, 부모의 어린 시절 양육경험과 현재 부모로서 나의 모습을 인식 하고 수용할 수 있다. 즉, 어렸을 때 부모의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을 회상하고 현재 부모가 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수용하여 자녀의 이해를 돕는다.

셋째,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기질, 성격, 발달단계를 이해한다. 즉, 자

녀의 현재 모습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넷째, 가족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즉, 자녀와 대화할 때 부모의 대화 유형을 점검해 보고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본다. 즉, 부모-자녀관계에서 감정은 서로를 촉발시키며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적, 부정적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전한 감정 표현 방법을 알 수 있다.

나. 회기별 목표와 내용

본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기는 전통놀이를 이해하고 부모-자녀관계 개선의 필요성 인식과 부모교육 참여에 관한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한 활동이며, 2~5회기는 과제로 제시된 전통놀이를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실천하고 활동을 통해 느꼈던 소감을 나누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6회기에서는 프로그램의 참여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가족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요인에 관해 함께 소통하는 활동이다. 각 회기별 목표 및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회기별 목표와 내용

회기	프로그램 내용		소요시간
1	목표	제시된 전통놀이를 이해하고 부모자녀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총 90분
	내용	• 오리엔테이션	10분
		• 사전검사	20분
		• 전통놀이 설명과 실시(가위 바위 보, 쌀보리)	40분
		• 긍정적인 양육 vs 부정적인 양육	20분
2	목표	* 부모의 어린 시절 양육경험과 현재 부모로서 나의 모습을 인식 하고 수용할 수 있다. * 전통놀이에 관한 흥미 유발과 부모와 라포를 형성한다.	총 90분
	내용	• 가정에서 활동 후 소감나누기	20분
		• 전통놀이 설명과 실시(다리셈 놀이, 실뜨기)	40분
		• 자기 이해를 통한 현재 나의 양육 방식 이해하기	30분
3	목표	* 학령기 아동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 모습을 수용 할 수 있다. * 주변의 다양한 사물을 이용한 놀이는 사소한 물건을 비롯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총 90분

회기	프로그램 내용		소요시간
3	내용	• 가정에서 활동 후 소감나누기	20분
		• 전통놀이 설명과 실시(공기놀이, 오목놀이)	40분
		• 학령기 발달 과업과 양육태도를 살펴본다.	30분
4	목표	* 가족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 사고하며 상호작용하는 전통놀이를 통해 소통의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본다.	총 90분
	내용	• 가정에서 활동 후 소감나누기	20분
		• 전통놀이 설명과 실시(제기차기, 스무고개)	40분
		•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30분
5	목표	* 긍정적, 부정적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건전한 감정 표현 방법을 알 수 있다. * 전통놀이 게임을 통한 규칙이해와 승패에 따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총 90분
	내용	• 가정에서 활동 후 소감나누기	20분
		• 전통놀이 설명과 실시(구슬치기, 딱지치기, 투호놀이)	40분
		• 감정의 중요성과 적절한 감정 표현 방식이란?	30분
6	목표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갖는다.	총 90분
	내용	• 가정에서 활동 후 소감나누기	20분
		• 사후 검사	20분
		•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안다.	40분
		• 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 후 마무리	10분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의 ○○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교 및 자모회 모를 대상으로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24명의 모에게 실시하였다. 부모교육 대상의 조건은 전통놀이의 의미를 이해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년 및 고학년인 3~6학년 자녀를 둔 모이며, 부모교육에 참여한 모는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와 함께 전통놀이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실험집단 부모−자녀와 통제 집단 부모−자녀를 무작위로 12명씩 나

누어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모 평균나이는 37.8세이며 자녀의 평균나이는 11.5세이다. 통제집단의 모 평균나이는 39.2세이며 자녀 평균나이는 10.3세이다. 프로그램 실시 과정 중에 실험 집단의 모 한 분이 중도 포기하여 실험집단 11명과 통제 집단 12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 연구설계

연구 설계는 사전, 중재 그리고 사후설계이고 종속변인은 부모-자녀관계이며 독립변인은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사후에 초등학생 부모-자녀관계 검사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검사에서 나타난 점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매 회기별 소감나누기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현온강, 조복희(1994), 정경아(1993) 그리고 이은경(1994)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변경화(1999)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위영역으로 분류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30개 문항으로 심리적 만족도, 생활 만족도 및 의사소통 만족도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척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는 Likert식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는 부정문의 경우 역채점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계수를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으며 심리적 만족도는 .776, 생활만족도 .694 그리고 의사소통만족도 .850으로 나타났다.

나.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척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미경(2011)의 초등학생용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척도로는 친밀·지지 10문항,

권위·통제 7문항, 관계 5문항, 과잉기대 4문항 그리고 허용지지 4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생용 부모 자녀 관계 척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반응하는 Likert식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는 부정문의 경우 역채점을 실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의 a계수는 .890, 5개의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친밀·지지 .732, 권위·통제 .754, 관계 .867, 과잉기대 .821, 그리고 허용지지 .721로 나타났다.

4. 연구절차 및 분석

연구 중재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1회기 90분으로 주 1회, 총 6회기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의 동질성 비교를 위한 t-test와 효과성 검증을 위해 공분산 분석을 실시였다.

Ⅳ. 연구결과

1. 집단의 동질성

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효과 검증을 위해 부모 전체 척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과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0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검사 동질성 비교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실험	11	95.09	12.145	-.452	.622
	통제	12	97.25	10.763		

2. 부모교육이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의 공분산 분석검증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이 부모가 느끼는 부모-자녀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동질성은 확보되었으나 다른 변수를 제외한 프로그램 처치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각 변인별로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만족도 하위요인별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하위요인별 공분산 분석결과

하위요인	총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심리만족	124.306	1	124.306	35.795	.000
생활만족	12.748	1	12.748	.670	.423
소통만족	83.350	1	83.350	.5.313	.032

공분산 분석결과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처치 이후 실험집단의 부모-자녀 심리만족과 소통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5$) 향상되었다. 그러나 생활만족은 유의한 향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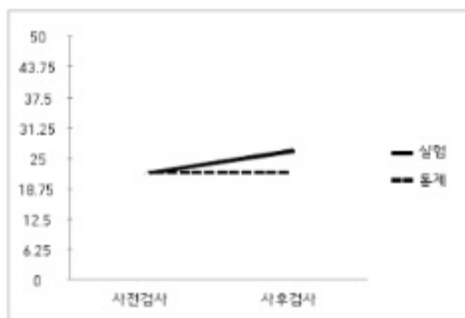
나.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사전-사후 평균점수 차이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점수 및 평균점수 차이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고, 하위요인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 <그림 3>와 같다.

〈표 4〉 부모-자녀만족도 기술통계 및 평균점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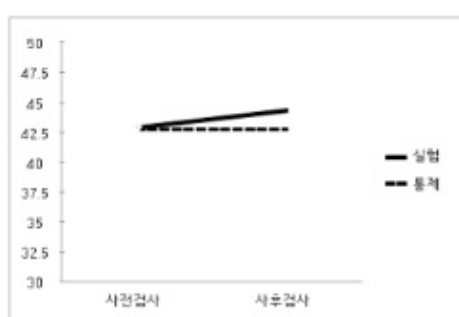
변인	실험집단(N=11)			통제집단(N=12)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차이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차이
심리	21.82	26.45	−4.63	22.08	22.08	0
만족	(2.639)	(4.034)		(2.065)	(2.065)	

변인	실험집단(N=11)			통제집단(N=12)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차이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차이
생활 만족	42.91 (5.752)	44.36 (6.667)	−1.45	42.75 (5.512)	42.75 (5.512)	0
소통 만족	30.36 (6.087)	34.27 (4.101)	−3.91	30.58 (5.854)	30.58 (5.854)	0



〈그림 2〉 심리만족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량

심리만족에 대한 평균점수 분석결과, 심리만족의 실험집단 사전 평균값은 21.82이고 통제집단의 평균값은 22.08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 검사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심리만족 평균값은 26.45로 4.63이 상승하였고, 통제집단 평균값은 22.08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생활 만족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량

생활 만족에 대한 평균점수 분석결과, 생활만족의 실험집단 사전 평균값은 42.91이며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값은 42.75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생활만족 실험집단

사후 평균값은 44.36으로 1.45 상승하였고 통제집단 평균값은 43.75로 1.0상승하였다.

소통 만족에 대한 평균점수 분석결과, 소통만족의 실험집단 사전 평균값은 30.36이며 통제집단의 평균값은 30.58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소통만족 실험집단 사후 평균값은 34.27로 3.91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 평균값은 30.58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교육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공분산분석검증

부모교육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른 변수를 제외한 각 변인별로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별 공분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자녀 관계 하위요인별 공분산 분석 결과

하위요인	총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친밀	118.802	1	118.802	10.171	.005
관계	53.597	1	53.597	7.539	.012
허용	3.751	1	3.751	.837	.371
권위	6.261	1	6.261	.893	.356
과잉	6.055	1	6.055	.1.103	.306

공분산 분석결과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처치 이후 실험집단의 부모-자녀 친밀감과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5$) 향상되었으나 허용, 권위와 과잉에서는 유의한 향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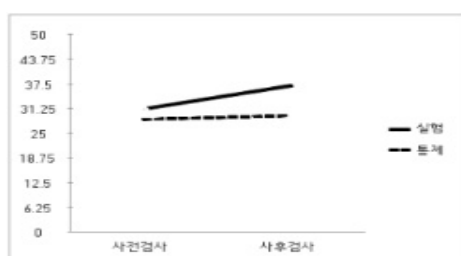
나.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공분산분석검증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점수의 기술통계 및 평균점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6>과 같고, 하위요인별 변화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 <그림 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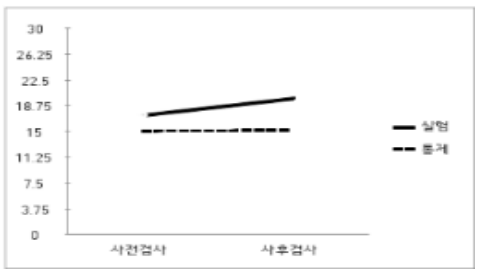
〈표 6〉 부모-자녀관계 기술통계 및 평균점수 차이

하위요인	실험집단(N=11)			통제집단(N=12)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차이	사전검사	사후검사	평균차이
친밀	31.18	37.00	−5.82	28.50	29.50	−1.00
	(4.792)	(7.014)		(2.747)	(2.111)	
관계	17.36	19.82	−2.46	15.08	15.17	−0.09
	(3.957)	(4.262)		(1.311)	(1.403)	
허용	13.73	14.36	−0.63	13.42	13.42	0.00
	(3.952)	(3.355)		.793	.900	
권위	26.09	26.82	−0.73	23.58	26.82	−3.24
	(6.024)	(6.524)		(1.379)	(1.243)	
과잉	14.45	15.27	−0.82	13.00	13.42	0.42
	(4.083)	(3.952)		(1.044)	(.793)	



〈그림 4〉 친밀감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량

친밀감에 대한 평균점수 분석결과, 친밀감의 실험집단 사전 평균값은 31.18이며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값은 28.50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소통만족 사후 실험집단 평균값은 37.00로 5.82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 평균값은 29.50으로 1.0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관계의 사전-사후 평균 변화량

관계에 대한 평균점수 분석결과, 관계의 실험집단 사전 평균값은 17.36이며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값은 15.08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소통만족 사후 실험집단 평균값은 19.82로 2.46점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 평균값은 15.17로 0.0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에 대한 평균점수 분석결과, 허용의 실험집단 사전 평균값은 13.73이며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값은 13.42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소통만족 사후 실험집단 평균값은 14.36로 0.63점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 평균값은 13.42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에 대한 평균점수 분석결과, 권위의 실험집단 사전 평균값은 26.09이며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값은 23.58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권위 사후 실험집단 평균값은 26.82로 0.73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 평균값은 26.82로 3.24 상승으로 나타났다.

과잉에 대한 평균점수 분석결과, 과잉의 실험집단 사전 평균값은 14.45이며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값은 13.00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과잉 사후 실험집단 평균값은 15.27로 0.82 상승하였으며 통제집단 평균값은 13.42로 0.42 상승으로 나타났다.

4. 부모교육에 관한 소감나누기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시간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전통놀이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매 회기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들과 전통놀이 시간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사례 1]은 가족이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사례 2]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오늘은 무슨 놀이를 가지고 올까?’ 기다린다고 하였고 [사례

3]은 가족이 서로 규칙을 정하고 먹을 것 내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빠가 함께하니 더 행복한 시간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

둘째로는 자녀들이 놀이재료를 만들고 새로운 방법으로 활동하는 과정을 즐긴다고 보고하였다. [사례 4]는 혼자 하는 실뜨기를 신기해하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좋아하였으며, [사례 5]는 어렸을 때 병따개, 돌 등을 이용해 제기를 만들었던 경험을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사례 1]은 자녀가 살이 쪄서 발 올리는 것이 힘들어 제기를 한 번도 못 차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에 부모는 제기를 던져주는 방법으로 제기를 찰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고하였다.

셋째로는 자녀들이 전통놀이를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보고하였다. [사례 6]은 아이들이 놀면서 투닥거리는 모습만 봐도 예쁘다고 하였으며, [사례 4]는 부모가 오빠하고만 놀아준다며 시샘을 하여 적절히 놀아 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보고하였다.

넷째는 자녀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사례 7]은 바빠서 자녀랑 놀아주지 못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자녀가 너무 좋아하고 서로가 더 가까워졌으며 [사례 8]은 자녀와 웃고 장난치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진 것을 느끼며 [사례 9]는 가족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자녀들도 부모가 놀아주는 것이 자녀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서 좋아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준 것은 아니고 일부 부모들은 '너무 바빠서, 자녀가 활동보다 놀잇감을 수집하는 걸 좋아해서 보관을 하느라 놀지 못했다. 김장하느라 너무 바빠서 못했다.'고 하시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부모들도 있었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보고가 많았다.

또한 자녀들은 '과자를 활용한 맛있는 공기놀이, 코끼리 공기놀이, 혼자 하는 실뜨기, 종이에 하는 오목 놀이, 손가락 셈 놀이' 등의 응용 놀이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며 참여도가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모 위주의 놀이에서 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제기 차기나 투호놀이에서 자녀들은 놀이하는 부의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며 언어적 상호작용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일반 놀이에 비해 전통놀이는 어릴 적 놀았던 경험이 있는 부모의 흥미 유발과 참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작용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가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실시하는 전통놀이 활동이 부모-자녀 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부모 24명을 대상을 모집하여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12명씩 편성하였다.

실험설계는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변인은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이고 종속변인은 부모-자녀관계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총 6회기 동안 실험집단은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아무런 활동도 실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처치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각 변인별로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 심리만족과 소통만족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경애(2010)의 부모교육 참여가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김옥남(2003)의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는 부모로서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부모 역할을 취하게 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주며, 노미경(2003)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통찰하고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고, 자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어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승희(2006)의 부모교육을 실시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더욱 개선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자녀는 부모와 전통놀이 활동을 통해 친밀감과 관계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가정에서 자녀와 전통놀이를 실시함으로써 자녀는 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가 향상된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서연(2004), 박미정(2006)의 연구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 시간을 가지려는 부모의 노력이 부모-자녀관계에

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결과와 성영혜(1995)의 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간 신체 접촉 증진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부모−자녀 관계에 도움을 주며, 김태희(2010)의 자녀와 상호작용 프로그램이 부모−자녀관계를 향상 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놀이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한 김효선(2011)의 가족놀이음악치료가 가족의 친밀감을 향상시켜 서로의 접촉을 수용하고 증가하는 변화가 있어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연구와 정남주(2010)의 미술을 활용한 놀이가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켜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와도 일치된다. 또한 부모의 소감 나누기에서 부모들은 자녀와 놀이재료를 만들고 새로운 방법으로 활동하는 과정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었고 전통놀이 시간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되어 행복하였으며, 자녀들이 놀이 시간을 기다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느껴 관계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 경험으로 부모에게 익숙한 '노래를 이용한 전통놀이, 신체 활동 전통놀이, 부모와 함께 놀잇감을 만들 수 있는 전통놀이.' 등의 전통놀이의 특성 요소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상호작용 역할을 하여 자녀는 부모와 친밀감을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감을 느끼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통놀이와 통합적 접근으로 시도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부모로써의 자신과 자녀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부모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자녀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의 5개의 하위요인 중에 소통과 친밀감 2개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3개의 하위요인인 허용, 권위, 과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통놀이 게임을 활동이 지금−여기에서 부모−자녀로 하여금 소통을 통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매개 역할로 작용될 수 있었으나 6회기로 진행된 단기프로그램의 특성상 부모의 양육 환경과 태도에 영향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교육에서 활용한 전통놀이는 부모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익숙하고 편안한 놀이로 가정에 돌아가 자발적인 과제 수행이 쉽다는 가정을 두고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놀이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부모는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들과 함께 전통놀이 활동을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가 가정에서 전통놀이를 이용해 자녀와 함께 놀아줌으로써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와의 사이를 친밀하게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가 향상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만족도 하위요인의 생활만족과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인 허용, 권위, 과잉에서는 전통놀이 활동을 실시하기 전 보다 평균값은 상승하였지만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모교육 후 부모들이 효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이 단기간, 단기횟수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부모-자녀 사이에 인식된 관점을 바꾸기에는 짧은 면이 있다는 김태희(2010)의 연구 제한점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교육 시간에 나눈 소감나누기 중 과제로 제시된 전통놀이를 실천하는 부모들이 바쁜 일상으로 과제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분석을 사용한 대상자의 수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24명으로 너무 적은 표본으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프로그램에는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집단 설계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더욱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 위주의 전통놀이를 활용한 단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효과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6회의 단기프로그램이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엔 짧다는 관점과 부모가 과제로 제시된 전통놀이 실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프로그램이 부모 위주의 집단형태로 구성되었음에도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소집단의 가족 형태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전통놀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으며 모가 실제적인 연구대상이었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 척도에서 성인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 않고 피실험 대상자인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의 사용으로 보다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다섯째, 부모가 어렸을 때 경험하였던 전통놀이는 일상생활에서 자녀들과 적용할 수 있는 쉬운 접근으로 새롭게 배워야하는 놀이보다 실천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하는 전통놀이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강경애(2010). 부모교육 참여가 자녀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상미(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자·최병언(2011).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 교육연구. 인간발달연구, 11(2), 49-65.

김옥남(2003). 통합 환경에서 전통놀이 활동이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숙(2008). 부모참여 전통놀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부모인식조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대(2002).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청소년 집단 상담의 운영. 한국청소년 상담원.

김태희(2010). 의사소통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만 4, 5세 자녀를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선(2011).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자녀−부모 관계 증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행(201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2007). 전통놀이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주의집중과 자아존중감.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미경(2003) 정서관리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정(2006). 유아기 부모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비교 연구. 그램 책읽기 상황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영혜(1995). 아버지도 부모인가. 서울: 샘터사.

선우현(2007). 위계질서가 혼란된 가족의 가족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389-406.

심미경·장덕돌(2000). 전통놀이가 ADHD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 장애연구. 정신분석,

21(2), 89-96.

예서현(2004). 의사소통 훈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효능감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2011).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25(4), 997-1017.

이상수(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 반발심 및 문제행동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희(2006). 경험적 가족놀이치료가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과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남주(2010). 미술치료기법을 적용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신애(2007). 아빠랑 아이랑 친구 되는 행복한 놀이. 행복한나무.

최지희(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지애(2007). 초등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전통놀이를 활용한 학급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ark SY, Cheah CS(2005).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 *Int J Behav Dev* 2005, 29, 24-34.

〈Abstract〉

Effectivenes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utilizing Traditional Games

Yune, Eun-Joo · Shim, Hae-Won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verity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 training program in thrid to sixth graders' parents by using traditional games which is familiar to the parents. 24 thrid to sixth graders' parents were subjected and devided into two groups: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parent training program by using traditional games is designed and revised based on Changdea Kim's the model of Program Developement(2002). The parents' training session was designed once a week, 90 minutes per session, and total six sessions were performed. As the results, the training program by using traditional game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both satisfaction of parent-perceived parent and child's relationship and child-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This study found that the activities including making creative game rules actively which requires compromise with family makes possible to develop a parent education program which contains Korean's emotion.

Key Words: traditional games, parent educa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통합치료연구 제9권 1호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017. Vol. 9 No. 1. 27-54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집단(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의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이슬비* · 김은연 · 유현지 · 최예린**
명지대학교 · 명지대학교 · 명지대학교 · 명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집단(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의 차이를 알아보고, 집단(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상자는 일반 성인 10명, 말더듬 성인 1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이 더 컸고, 화자의 성별에 따라 비교했을 때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 여성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이 유의하게 더 컸다. 둘째,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 불안이 커질수록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이 커졌다. 그리고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불안이 커질수록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이 커졌으나,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불안이 커질수록 편안하지 않음이 커졌다. 셋째,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집단 내에서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핵심어: 말더듬, 말속도, 불안, 상태 불안, 의사소통태도

---

* 본 연구는 이슬비(2017)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의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비교"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최예린(yaelinchoi@gmail.com)

■ 게재 신청일: 2017년 7월 17일 ■ 최종 수정일: 2017년 8월 08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8월 11일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말더듬은 일반적으로 2~6세 사이에 발생하며, 말더듬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면 자신의 말더듬을 완전히 인식하고 스스로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어 말에 대한 공포, 두려움, 좌절 및 불안을 가질 수 있다(이승환, 2008).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정서 중의 하나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취도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불안은 매우 불쾌하고 피하고 싶은 감각이기도 하다(송영혜, 1985). 말더듬에서 불안은 자율 신경계의 작용으로 빠른 구어 속도를 수반할 수 있어서 말더듬 행동을 일으키거나, 상위중추 신경계 수준에서 구어 행동의 정상적인 산출이나 부호화를 방해한다(권도하, 2011 재인용). 불안은 말을 더듬는 사람들의 개인적 기질, 구어과업, 언어치료 유무, 말더듬 정도, 의사소통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영옥·권도하, 2010). 말더듬과 불안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보면, 불안이 말더듬 행동의 원인인지 아니면 말더듬 행동의 결과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불안과 말더듬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Bloodstein, 1995). 말더듬과 불안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말더듬과 불안이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이고(Craig, 1990), 다른 하나는 말더듬과 불안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입장이다(Gray & England, 1972). 불안이 말더듬의 원인인지 아니면 말더듬의 결과인지 이 둘의 관계는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더듬과 불안과의 관계를 다른 연구에서는 말을 더듬은 사람이 말을 더듬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안이 높고 의사소통 태도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더듬에서 회복되었을 때, 불안이 감소되고 의사소통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연구가 있으며, 이는 불안이 말더듬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재인용). 국내에서 말더듬과 불안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는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간 특성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 특성불안이 높았다는 연구결과(고영옥·권도하, 2010)가 있으며,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집단 간의 대인관계 상황에서 사회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 대인관계 상황에서 사회불안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김주연, 2008). 또한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학령기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특성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학령기 말더듬 아동이 학령기 일반 아동보다 특성 불안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우정·이수복·심현섭, 2014). 이처럼 국내의 말더듬과 불안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더듬지 않은 사람에 비해 특성 불안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주로 나타났다. 또한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더듬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안이 높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태도도 같이 살펴보았을 때,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더듬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사소통태도가 높았다(고영옥·권도하, 2010; 권도하·박진원, 2012; 최다혜, 2003). 말더듬에서 의사소통태도는 말하기 또는 말더듬에 대한 생각과 그로 인한 말의 심리적 부담감과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말을 더듬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말더듬과 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말더듬과 의사소통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더 부족한 실정이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면 그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기도 한다. 의사소통 상황에는 대상자, 주위 환경, 말의 내용, 구어 화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구어 화법에는 언어학적(linguistic) 요소, 준언어학적(paralinguistic) 요소, 비언어학적(nonlinguistic) 요소와 언어외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상황 중 구어화법의 준언어적 요소에 해당하는 말속도를 보고자 하였다. 말속도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Guitar, 1998). 말속도가 빠를 경우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명료도가 떨어져 의사소통이 방해된다. 반대로 말속도가 느린 경우 화자가 말에 대한 주의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방해된다(김상준, 1997). 또한 말속도가 나이에 비해 너무 느리거나 빠를 경우 이것은 구어 산출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말속도는 화자의 연령, 성별, 과제, 발화길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신명선·전희숙·김효정·장희진, 2013). 말속도가 말더듬과 많은 상관이 있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말더듬과 말속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말더듬 치료에서는 말속도를 측정하여 비유창성의 정도와 치료방법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말속도를 다룬 연구는 유아(김지연, 2001), 학령기 아동(조세진, 2005; 문지은·권도하, 2015), 청소년(윤혜신, 2009), 성인(심홍임, 2004)의 말속도에 관한 기준치에 대해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말더듬과 말속도를 다룬 연구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전희정·권도하, 2004), 과업에 따른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신명선·안종복, 2009), 학령기 말더듬 아동(이강현·권도하, 2004), 말더듬 성인

(신문자, 2000)의 말속도에 관한 기준치에 대해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말속도 기준치에 대한 연구 외에는 말속도 조절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대화상대자의 말속도 변화에 따라서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에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았을 때, 대화상대자의 말속도가 말더듬 아동의 말속도보다 느린 경우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이 감소되었다(이경재, 2003).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Dr. Fluency를 이용한 연장 기법을 사용하여 말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말더듬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말더듬 빈도와 말더듬 형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김하경·권도하, 2004).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말속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말더듬 성인이 의도적으로 3분 동안 느린 구어를 유지하는지 살펴보았을 때, 말더듬 성인은 의도적으로 3분 동안 느린 구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전희숙·권도하, 2005). 그리고 말더듬 성인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유창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 말속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일반 성인에 비해 말더듬 성인이 말속도를 유창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혼자 읽기 상황과 동일 문장을 읽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합독 읽기 상황과 다화자잡음을 배경잡으로한 읽기상황에서 말속도가 변화하는지 연구하였을 때, 상황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된 말속도를 보여주었다(박진·정인기, 2012).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말더듬의 심한 정도에 따라 읽기 상황에서 말속도에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이 심할수록 말속도가 늦게 나타났다(박진원·권도하, 2010).이처럼 국내에서 말속도와 관련해서 말속도 기준치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상황 중의 하나인 화자의 말속도와 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 태도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말더듬의 특성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상담 및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과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말더듬 성인 10명과 일반 성인 10명이다.

말더듬 성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1) 치료사가 말더듬으로 진단하며, (2) 신체, 정서 및 발달 장애가 없고, (3)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말더듬 인으로, (4) 아동기 때 말더듬이 시작된 말더듬 인으로 선정하였다. 말더듬 성인은 모두 남자로, 연령범위는 20세~45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32세였다.

성별과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병리적인 말·언어 문제가 없고, (2) 신체, 정서 및 발달 장애가 없으며, (3)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4)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에서 말더듬이 없음으로 진단된 사람들이다. 일반 성인은 모두 남자로, 연령범위는 22세~50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32세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말더듬 남자 성인의 대상자 특성

대상자	연령	말더듬 정도	의사소통태도 정도
1	23세	약함	약함
2	41세	중간	심함
3	32세	중간	중간
4	43세	중간	중간
5	27세	중간	약함
6	23세	심함	중간

대상자	연령	말더듬 정도	의사소통태도 정도
7	42세	심함	심함
8	42세	심함	약함
9	20세	심함	심함
10	33세	심함	중간

2. 실험도구 제작

본 연구에서 청취 자료는 한글 자모음이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진 표준화된 문구 '가을'문단(김향희, 2012)을 선정하여 '가을'문단의 134음절에 해당하는 문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년 경력이 있는 전문 남성성우와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 여자 아나운서가 '가을'문단의 134음절에 해당하는 문단을 말속도 기준에 따라 라디오 뉴스 형으로 녹음된 청취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취차료 제작은 소음이 제한된 녹음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녹음 장비는 오디오인터페이스(tascam US 4×4), 마이크(Audio-technical-AT3035), 녹음 프로그램은(Llgic pro)를 사용하여 녹음 제작하였다. 말속도 기준은 일반 성인들의 읽기 상황에서 성별에 따라 말속도를 측정한 결과(안종복·신명선·권도하, 2002)를 사용하였는데, 성별에 따라 평균 말속도를 기준으로 표준편차 +2SD이하를 느린 말속도로, −1SD~+1SD를 보통 말속도, −2SD 이상을 빠른 말속도로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을'문단의 134음절에 해당하는 문단을 청취 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읽기 상황에서의 말속도 기준인 분당 음절수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말속도 기준을 초당 음절수로 계산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취 자료로 제작된 성별에 따른 말속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청취 자료의 화자의 말속도 (단위: 초당 음절 수)

말속도 / 성별	여자 아나운서	남자 성우
느림	4.27	4.50
보통	5.16	5.32
빠름	6.03	6.10

3. 연구절차

가. 연구절차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자와 1:1로 조용한 언어치료실이나 조용한 방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는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고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P-FA)를 실시한 후 화자의 말속도(느림, 보통, 빠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측정하였다.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청취 자료는 총 12개이며, 남성 화자의 말속도(느림, 보통, 빠름)로 구성된 세 개의 청취 자료와 여성 화자의 말속도(느림, 보통, 빠름)로 구성된 세 개의 청취 자료로 각 두 번씩 구성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청취 자료 12개를 들려주며, 청취 자료의 제시 순서가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무작위로 들려주었다(김성경·신명선, 2016). 대상자들은 청취 자료를 하나씩 듣고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정도를 기록하였다.

나. 평가도구

⑴ 말더듬 정도 검사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 중증도를 검사하기 위해『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P-FA)Ⅱ』(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를 사용하였다.『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P-FA)Ⅱ』는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과 같이 연령대별로 나누어 검사과제의 종류, 문항, 그리고 그림 형식 등을 달리함으로써 거의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중학생 이상에게 실시하는 필수과제(읽기, 말하기 그림, 대화)를 실시하고, 필수과제에 해당하는 과제들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필수과제 총 점수를 점수 분포 표에 대조하여 말더듬 정도(약함, 중간, 심함)를 파악하였다.

(2) 의사소통태도 검사

의사소통태도 검사는『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P-FA)Ⅱ』(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의 성인용 의사소통태도 검사지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성인용 의사소통태도 검사지에는 말하기 또는 말더듬에 대한 생각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P-FA)Ⅱ』(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의 성인용 의사소통태도 검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하는 것으로 성인이 질문에 대해 '예/아니오'로 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3)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 측정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화자의 말속도(느림, 보통, 빠름)에 따른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화시킨 상태-특성 불안 척도(김정택·신동균, 1978)를 참고하였다(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 상태-특성 불안 척도에는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태 불안 척도는 '현재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성 불안 척도는 '평소에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 불안은 비교적 개인에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불안으로 본 연구에서 보는 의사소통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대해 변화하는 불안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상태 불안 척도 항목에서 말속도에 따라 느낄 수 있는 단어(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으로 나누고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A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청취과제의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의 처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과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여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고 기술통계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수준으로 하였다.

Ⅲ. 결과

1.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과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 차이

일반 성인 집단과 말더듬 성인 집단의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말더듬 성인은 일반 성인보다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으나($p<.05$),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은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집단 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n=20)

과제	집단	df	F	p-값	
불안	집단	1	6.635	.019	
상태 불안	편안하지 않음	집단	1	6.972	.017
	긴장	집단	1	3.560	.075

과제	집단	df	F	p-값	
상태 불안	짜증스러움	집단	1	2.448	.135
	조마조마함	집단	1	1.156	.296
말의 부자연스러움		집단	1	1.214	.285

※ *p<.05

일반 성인 집단과 말더듬 성인 집단 간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은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으나(p<.05),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은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은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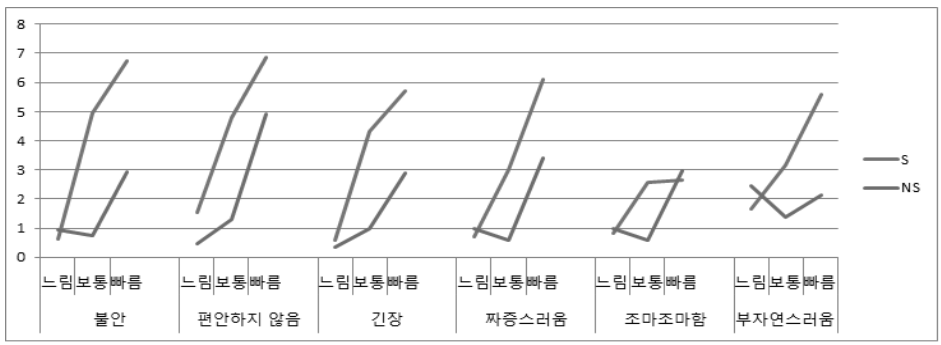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말의 부자연스러움은 남성화자의 보통 말속도보다 느린 말속도에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편안하지 않음과 긴장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불안,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에서 여성화자의 보통 말속도보다 여성화자의 느린 말속도에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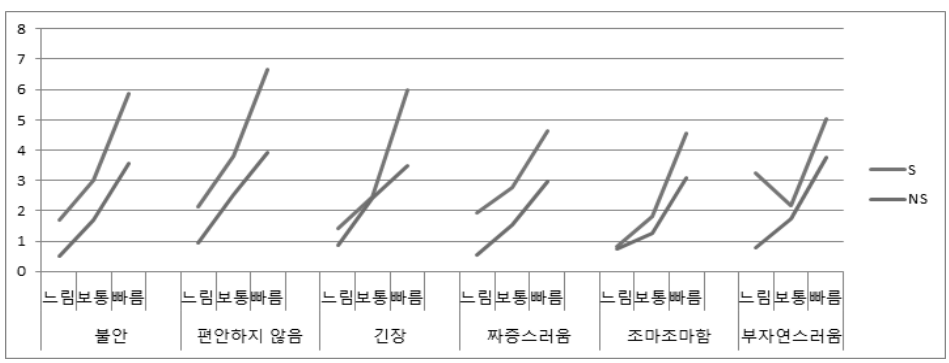
〈표 4〉 집단 간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과제	집단 / 말속도	S(n=10) M±SD	NS(n=10) M±SD	p-값
불안	여성 화자	느림	0.64±1.043	0.96±2.831	.005
		보통	4.96±3.273	0.76±1.615	
		빠름	6.74±3.177	2.93±2.827	
	남성 화자	느림	1.69±1.527	0.50±0.955	.108
		보통	3.02±3.385	1.68±2.481	
		빠름	5.87±3.218	3.57±3.405	
상태 불안	편안하지 않음	느림	1.54±1.282	0.48±0.930	.013
		보통	4.80±3.461	1.29±2.259	
		빠름	6.86±3.941	4.93±2.737	
		느림	2.13±2.246	0.95±1.039	.056
		보통	3.82±3.503	2.54±3.274	
		빠름	6.66±3.386	3.91±2.874	
	긴장	느림	0.59±1.048	0.36±0.919	.026
		보통	4.32±3.310	0.99±1.946	
		빠름	5.72±3.866	2.90±2.649	
		느림	1.42±1.736	0.88±1.864	.306
		보통	2.47±2.769	2.41±3.136	
		빠름	5.98±3.480	3.48±3.325	
	짜증스러움	느림	0.71±1.085	0.97±2.828	.106
		보통	3.02±3.370	0.59±1.124	
		빠름	6.11±3.448	3.42±3.450	
		느림	1.92±3.191	0.56±0.975	.231
		보통	2.76±3.695	1.55±2.172	
		빠름	4.65±3.777	2.98±3.440	
	조마조마함	느림	0.81±1.266	0.97±2.830	.193
		보통	2.57±3.323	0.59±1.108	
		빠름	2.65±3.777	2.98±3.440	
		느림	0.81±0.788	0.76±1.906	.441
		보통	1.80±2.729	1.25±2.013	
		빠름	4.56±3.222	3.09±3.216	
말의 부자연스러움		느림	1.64±1.826	2.45±3.195	.450
		보통	3.16±3.713	1.37±2.051	
		빠름	5.60±2.847	2.14±3.599	
		느림	3.25±3.438	0.78±1.098	.207
		보통	2.16±2.672	1.74±2.499	
		빠름	5.02±03.944	3.78±3.611	

※ *p<.05, **p<.01 ※ S=말더듬 집단 ※ NS=일반 집단



〈그림 1〉 집단과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평균



〈그림 2〉 집단과 남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평균

집단 내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 말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사후 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말더듬 성인 집단 내에서 불안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보다 보통 빠르기($p<.01$)와 빠를 때($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졌으며, 편안하지 않음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보다 빠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다($p<.05$). 긴장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보다 보통 빠르기($p<.05$)와 빠를 때($p<.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졌으며, 짜증스러움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보다 빠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다($p<.01$). 조마조마함과 말의 부자연스러움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보다 빠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졌으며($p<.05$),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 빠르기 때보다 빠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다($p<.05$).

일반 성인 집단 내에서 불안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편안하지 않음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보다 빠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커졌고(p<.01),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일 때보다 빠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다(p<.05). 긴장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보다 빠를 때 통계적으로 더 컸으며(p<.05), 짜증스러움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일 때보다 빠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다(p<.05). 조마조마함과 말의 부자연스러움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일 때보다 빠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다(p<.05)

〈표 5〉 집단 내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상태 불안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집단	말속도 과제	느림	보통	빠름
	불안	S (N=10)	느림		**	***
			보통			
			빠름			
		NS (N=10)	느림			
			보통			
			빠름			
상태 불안	편안하지 않음	S (N=10)	느림			*
			보통			
			빠름			
		NS (N=10)	느림			**
			보통			*
			빠름			
	긴장	S (N=10)	느림		*	**
			보통			
			빠름			
		NS (N=10)	느림			*
			보통			
			빠름			
	짜증스러움	S (N=10)	느림			**
			보통			*
			빠름			
		NS (N=10)	느림			
			보통			*
			빠름			
	조마조마함	S (N=10)	느림			*
			보통			*
			빠름			
		NS (N=10)	느림			
			보통			*
			빠름			

※ *p<.05, **p<.01, ***p<.001 ※ S=말더듬 성인 ※ NS=일반 성인

2.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에 대한 상관관계

집단 별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상태 불안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 불안이 커질수록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지만($p<.01$),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 빠르기일 때 불안이 커질수록 편안하지 않음과 짜증스러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지만($p<.05$), 불안과 긴장, 조마조마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불안이 커질수록 편안하지 않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지만($p<.01$), 불안과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말더듬 성인은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 불안이 커질수록 짜증스러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커졌지만($p<.01$),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 긴장, 조마조마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말더듬 성인은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 빠르기일 때 불안이 커질수록 편안하지 않음, 긴장, 조마조마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지만($p<.01$), 불안과 짜증스러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말더듬 성인은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불안이 커질수록 편안하지 않음($p<.05$), 긴장($p<.01$), 짜증스러움($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지만, 불안과 조마조마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 불안이 커질수록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지만($p<.01$),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 빠르기일 때 불안이 커질수록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다($p<.01$).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불안이 커질수록 긴장($p<.05$), 짜증스러움($p<.01$), 조마조마함($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지만,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일반 성인은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 불안이 커질수록 짜증스러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지만($p<.01$),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 긴장, 조마조마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일반 성인은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 빠르기일 때 불안이 커질수록 긴장과 짜증스러움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지만(p<.01),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 조마조마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일반 성인은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불안이 커질수록 편안하지 않음(p<.01), 긴장(p<.05), 조마조마함(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지만, 불안과 짜증스러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6〉 말더듬 집단의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상태 불안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N=10)

과제			불안	상태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느림		불안		−.025	.272	.787**	.056
	상태불안	편안하지 않음	.435		.610	−.043	.204
		긴장	.996**	.385		−.122	.549
		짜증스러움	.934**	.432	.927**		−.237
		조마조마함	.860**	.525	.815**	.854**	
보통		불안		.808**	.959**	.621	.789**
	상태불안	편안하지 않음	.733*		.735*	.320	.818**
		긴장	.585	.487		.770**	.707*
		짜증스러움	.724*	.654*	.534		.504
		조마조마함	.355	.125	.568	.490	
빠름		불안		.690*	.936**	.781**	.464
	상태불안	편안하지 않음	.944**		.507	.599	.197
		긴장	.570	.639*		.653*	.504
		짜증스러움	.299	.212	−.192		.383
		조마조마함	.600	.611	.896**	.014	

※ *p<.05, **p<.01, ***p<.001
※ 대각선 아래: 여성화자의 말속도
※ 대각선 위: 남성화자의 말속도

〈표 7〉 일반 집단의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상태 불안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N=10)

과제			불안	상태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느림		불안		.622	.172	.964**	−.035
	상태불안	편안하지 않음	−.119		-.011	.724*	−.092
		긴장	.985**	.048		.040	.975**
		짜증스러움	1.000**	−.118	.984**		−.156
		조마조마함	1.000**	−.108	.987**	1.000**	

과제			불안	상태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보통		불안		.349	.832**	.875**	.295
	상태불안	편안하지 않음	.935**		.159	.310	−.104
		긴장	.980**	.966**		.733*	.761*
		짜증스러움	.986**	.891**	.950**		.286
		조마조마함	.989**	.897**	.955**	.999**	
빠름		불안		.806**	.700*	.542	.861**
	상태불안	편안하지 않음	.221		.620	.787**	.724*
		긴장	.673*	.117		.462	.847**
		짜증스러움	.860**	.318	.883**		.497
		조마조마함	.728*	.285	.919**	.899**	

※ *p<.05, **p<.01, ***p<.001 ※ 대각선 아래: 여성화자의 말속도 ※ 대각선 위: 남성화자의 말속도

3.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와의 상관관계

집단 별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와의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일반 성인 집단은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말더듬 성인 집단은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8〉 집단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N=10)

의사소통태도			여성 화자			남성 화자		
			느림	보통	빠름	느림	보통	빠름
의사소통태도			−.546	−.169	−.476	−.229	−.415	−.332
여성화자	느림	.206		−.148	−.078	−.057	−.081	.056
	보통	−.334	.230		.519	.995**	.795**	.810**
	빠름	−.008	.236	.588		.532	.678*	.804**
남성화자	느림	.029	−.256	.093	.226		.800**	.837**
	보통	.459	−.206	.297	.517	.405		.678*
	빠름	−.065	−.013	.645*	.915**	.270	.517	

※ *p<.05, **p<.01 ※ 대각선 아래: 말더듬 집단 ※ 대각선 위: 일반 집단

Ⅳ.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과 화자의 말속도에 대한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과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비교하고,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과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일반 성인, 말더듬 성인) 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간에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말더듬 성인은 일반 성인보다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이 더 커졌다. 불안은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Ezrati-Vinacour & Levin, 2004), 말더듬 성인은 일반 성인보다 말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가진다. 화자의 말속도에 따라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 불안이 더 큰 것은 말더듬 성인은 화자의 말속도에 따라 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말더듬 성인은 일반 성인보다 상태 불안이 더 컸다(김은나, 2016). 상태 불안은 일시적이며 특정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불안으로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조수철·정영·홍강의·신미섭·성영훈, 2001). 화자의 말속도는 일시적으로 특정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화자의 말속도를 듣고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측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화자의 말속도는 상태 불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화자의 말속도는 상태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간에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은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말더듬 성인은 일반 성인보다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과 편안하지 않음, 긴장이 더 컸다. 이는 말더듬 성인과 일반 성인의 대상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남자 말더듬 성인이 남자 일반 성인에 비해 여성화자의 말속도를 듣고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화상대자의 성별이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말더듬 성인은 일반 성인보다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라 긴장이 더 높았는데 이는 말더듬 성인들의 말더듬 증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말더듬 성인이 여성화자와 대화를 할 때 긴장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말더듬 성인이 여성화자와 대화를 할 때 긴장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말더듬 성인은 화자의 성별에 따라 느끼는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반영할 것을 권한다. 또한 임상에서 말더듬을 중재할 때, 말더듬 성인은 남성 언어재활사보다 여성 언어재활사에게 불안과 긴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여성 언어재활사들은 말더듬 성인들의 불안을 고려하여 중재를 해야 할 것이다.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보다 빠를 때 불안이 더 컸으나,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와 빠를 때 불안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을 크게 느끼지만,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을 말더듬 성인만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더 느꼈고,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을 더 느꼈다. 하지만 일반 성인은 말더듬 성인과는 달리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짜증스러움과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더 느끼지 못하였다. 이는 일반 성인은 말더듬 성인과는 달리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 빠르기일 때보다 느릴 때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부자연스러움을 더 느꼈기 때문이다.

말더듬 성인과 일반 성인은 모두 화자의 느린 말속도, 보통 말속도, 빠른 말속도 중에서 화자의 느린 말속도에서 가장 낮은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을 보이며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화자의 빠른 말속도에서는 가장 높은 불안, 편안하지 않음, 긴장을 보이며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반 성인의 구어속도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느린 말속도를 선호했다는 결과(신명선·전희숙·김효정·장현진, 2013)와 뉴스전달 속도에 따른 인식조사에서 느린 속도의 뉴스가 가장 안정감을 보이며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빠른 말속도의 뉴스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연구결과(박경희, 2008)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말더듬 성인을 중재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해야 하는 언어재활사는 느린 말속도, 보통 말속도, 빠른 말속도 중에서 느린 말속도가 불안이나 긴장을 덜 느끼고 편안해 한다는 현상을 반영할 것을 권하며 적어도 빠른 말속도는 피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말더듬 아동 및 성인의 보호자에게 화자의 느린 말속도가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불안을 덜 느끼며, 화자의 빠른 말속도는 불안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이 커질수록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더 느꼈고, 남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이 커질수록 남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더 느꼈다.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이 커질수록 여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더 느꼈고, 남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이 커질수록 남성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긴장, 짜증스러움,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더 느꼈다.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은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과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이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이 불안에 영향을 미쳤고, 남성화자의 말속도가 느릴 때 짜증스러움이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의 차이점을 보면 일반 성인이 말더듬 성인보다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보통 빠르기일 때와 빠를 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불안이 더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상태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말더듬 성인은 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일반 성인은 화자의 말속도가 빨라짐과 관계없이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을 분리할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연관 지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편안하지 않음을 제외하고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이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불안에 영향을 미쳤지만, 말더듬 성인은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편안하지 않음만 여성화자의 말속도가 빠를 때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상태 불안(편안하지 않음, 긴장, 짜증스러움, 조마조마함)은 모두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불안 정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화자의 말속도가 느리고 보통이고 빠르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태도 점수와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모두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남, 여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 성인의 특성불안과 의사소통태도 간에 상관이 있다는 결과(고영옥, 권도하, 2010)와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불안점수와 의사소통태도 점수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는 결과(김우정·이수복·심현섭, 2014)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에게 비교적 일정하게 지속되는 특성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

상관관계를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점수 간 상관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말더듬 성인 집단 내에서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태도 점수는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말더듬 성인 집단 내에서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점수에서 말더듬 정도가 약함을 보였던 말더듬 성인이 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말더듬 정도가 중간을 보였던 말더듬 성인 4명의 의사소통태도 점수(15점, 18점, 22점, 28점)와 말더듬 정도가 심함을 보였던 말더듬 성인 5명의 의사소통태도 점수(16점, 19점, 21점, 25점, 26점)를 보면,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고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중증도에 따라 의사소통태도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김우정·이수복·심현섭, 2014)와 같이 말더듬 집단 내에서 말을 심하게 더듬는 다고 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 집단 간 의사소통태도 점수는 일반 성인은 총 30점 만점에 6점, 7점, 8점, 9점이, 10점으로 나타났고, 말더듬 성인은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총 30점 만점에 14점, 15점, 16점, 18점, 19점, 21점, 22점, 25점, 26점, 28점으로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 보다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반 성인보다 말더듬 성인 집단에서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높은 것은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 자신의 말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 성인이 일반 성인 집단보다 말의 심리적 부담감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고영옥·권도하, 2010; 권도하, 2008)와 같이 말더듬으로 인해 의사소통 실패경험이 많은 말더듬 성인은 자신의 말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 일반 성인보다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가지며 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말더듬을 평가할 때 외현적인 특성인 말더듬의 핵심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특성인 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말더듬의 외현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과 말더듬 성인의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말더듬 성인들의 내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임상 현장에서 말더듬 성인을 평가 및 중재하거나 효과적인 상담을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 집단과 말더듬 성인 집단 모두 대상자가 남성이었으며,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대상자의 성별 비율을 맞추어 더 많은 대상자 수로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 집단과 말더듬 성인 집단 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정도와 말의 심리적 부담감 간에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태도 검사만 실시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일반 성인 집단과 말더듬 성인 집단 간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정도와 특성불안 및 상태 불안과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화자의 말속도에 대한 불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이나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화자의 말속도에 대한 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고영옥·권도하(2010). 말더듬 심도에 따른 불안 및 태도 특성. 언어치료연구, 19(1), 99-118.

권도하(2008). 말더듬인의 상황에 따른 말더듬 행동 발생 및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2), 75-87.

권도하(2011). 말더듬 치료 프로그램. 서울: 물과 길.

권도하·박진원(2012). 말더듬 정도에 따른 심리 정서적 특성. 정성, 행동장애연구, 28(3), 317-338.

김상준(1997). 방송언어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성경·신명선(2016). 일반 성인의 말속도 선호도 연구. 언어치료연구, 25(2), 57-64.

김우정·이수복·심현섭(2014). 학령기 말더듬아동의 불안 및 의사소통태도 특성. 특수교육, 13(2), 147-166.

김은나(2016). 정서 스트룹 과제를 통한 말더듬 성인과 일반 성인의 불안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택·신동균(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11), 69-75.

김주연(2008).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 중증도와 말더듬 지각 정도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3(4), 677-690.

김지연(2001). 3-5세 정상 아동의 말속도 발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하경·권도하(2004). Dr. Fluency를 이용한 연장 기법이 아동 말더듬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3(1), 39-61.

김향희(2012). 신경언어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문지은·권도하(2015). 학령기 아동의 학년별 말 속도 및 비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4(1), 113-121.

박경희(2008). 뉴스 전달 속도가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 화법연구, 19, 271-295.

박진·정인기(2012). 다화자잡음이 말더듬 비율과 말속도에 미치는 영향. 말소리와 음성과학, 4(2), 121-126.

박진원·권도하(2010). 말더듬 성인의 심한정도에 따른 구어속도 특성 비교연구, 11(1), 129-146.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2007). 사회복지척도집: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서울: 나눔의 집.

송영혜(1985). 정서장애아의 심리치료. 난청과 언어장애, 8(2), 17-22

신명선·안종복(2009). 과업에 따른 학령전기(5-7세) 아동의 말속도에 관한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1(3), 163-168.

신명선·전희숙·김효정·장현진(2013). 언어치료사와 일반 성인의 유창성요인에 대한 중요도 비교. 언어치료연구, 22(1), 223-234.

신문자(2000). 유창성장애 성인의 말속도와 유창성 측정에 관한 연구. 음성과학, 7(3), 273-284.

심홍임(2004). 한국 표준어 화자의 유창성과 말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음성학회, 11(3), 193-200.

심현섭·신문자·이은주(2010).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Ⅱ(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Ⅱ).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안종복·신명선·권도하(2002). 정상 성인 및 아동의 말속도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9(4), 93-103.

윤혜신(2009).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말속도 비교.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현·권도하(2004). 학령기 아동의 비유창성 유형과 구어속도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1), 79-88.

이경재(2003). 대화 상대자의 말속도 변화에 따른 말더듬 아동의 변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말속도와 말더듬 발생비율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8(5), 134-148.

이승환(2008).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전희숙·권도하(2005). 말더듬 성인이 의도적인 느린구어에서 나타나는 구어속도의 변화. 재활과학연구, 23(2), 79-88.

전희정·권도하(2004). 학령기 아동의 비유창성 유형과 구어속도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1), 79-88.

조세진(2005). 초등학교 3, 5학년 아동의 말속도에 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수철·정영·홍강의·신미섭·성영훈(2001). 시험불안과 우울,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25-236.

최다혜(2003).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 정도와 의사소통태도 간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loodstein, O.(1995). A handbook on stuttering. *Chicago: National Easter Seal Society*.

Craig, A.(1990).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5*, 290-294.

Ezrati, R. & Levi, I.(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stutter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9*(2), 135-148.

Gray, B. B. & England, G.(1972). Some dffects of anxiety deconditioning upon stuttering frequenc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5*, 114-122.

Guitar, B.(1998).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The University of Vermont Burlington.

부록

<부록 1> 화자의 말속도에 따른 불안, 상태 불안, 말의 부자연스러움 측정 설문지

녹음된 청취 자료를 듣고 지금 어떻게 느껴지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총 6개의 청취 자료를 들려 드리게 됩니다.
녹음된 자료를 듣고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적절한 곳에 예시처럼 세로선(|)을 표시해 주세요. (∨체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지 않다.		편안하다.

예)

편안하지 않다.		편안하다.

(O)

편안하지 않다.		편안하다.

(X)

성 명	

1)

편안하지 않다.	———	편안하다.

2)

긴장되지 않는다.	———	긴장된다.

3)

불안하지 않다.	———	불안하다.

4)

짜증스럽지 않다.	———	짜증스럽다.

5)

조마조마하지 않는다.	———	조마조마하다.

6)

자연스럽다.	———	부자연스럽다.

〈Abstract〉

The Anxiety and Communication Attitude According to Speech Rate of Speakers between two groups like General Adults and Stuttering Adults

Lee, Seul-bee · Kim, Eun-yeon · Yoo, Hyun-Ji · Choi, Yae-lin
Myongji University · Myongji University · Myongji University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anxiety according to the speech rate for the speakers between two groups like general adults and stuttering adults, state anxiety(discomfort, tension, annoyance, irritation), and unnatural remarks.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correlation with the anxiety, state anxiety(discomfort, tension, annoyance, irrit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adults and stuttering adults by groups like general adults and stuttering adults. And lastl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correlation with the anxiety and communication attitude score according to the general adults and stuttering adults by groups like general adults and stuttering adults. Ten general adults and ten stuttering adults engaged in this study actively.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bove,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stuttering adults had a higher anxiety and discomfort according to the speech rate for the speakers than those of general adults. When compared to that by the speakers' gender, the stuttering adults had a significantly higher anxiety, discomfort, and tension according to the speech rate for the female speakers than those of general adults. Second, when the general adults and stuttering adults were slow in the speech rate for the female speakers, the higher the anxiety became, the larger the tension, annoyance, and irritation became. When the general adults had fast speech rate for the female speakers, the larger the anxiety became, the larger the tension, annoyance, and irritation became. However, when the stuttering adults had fast speech rate for the

female speakers, the larger the anxiety became, the larger the discomfort became. Thir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anxiety and communication attitude according to the speech rate for the speakers within the general adult group and stuttering adult group.

Key Words: stuttering, speech rate, anxiety, state anxiety, communication attitude

통합치료연구 제9권 1호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2017. Vol. 9 No. 1. 55-78

마인드맵을 이용한 노래심리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윤미지* · **문소영****
두드림음악치료연구소 ·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명의 대학생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10명씩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에 총 12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주 2회 실시하였으며 한 회기당 60분 동안 제공하였다. 마인드맵을 활동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PEC 모델의 준비-탐색-창작(Preparing-Exploring-Creating)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회기마다 노래 감상하기, 마인드맵 가사 분석, 토의하기, 노래 부르기, 노래(가사)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와 한국형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대상자별 반응, 마인드맵 분석, 가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노래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아정체감 하위요인 중 친밀성 영역($P<.05$)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하위영역인 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진로정체감 점수의 하위영역인 자기 이해, 진로 준비 영역에서 실험집단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내용분석 결과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언어 · 비언어적 행동관찰, 마인드맵, 개사한 가사 내용에서 회기가 거듭될수록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영역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단서들을 보이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마인드 맵, 노래중심 음악치료,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대학생

---

* 본 연구는 윤미지(2017)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마인드맵을 이용한 노래심리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문소영(symoon@mju.ac.kr)

■ 게재 신청일: 2017년 7월 20일 ■ 최종 수정일: 2017년 8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8월 12일

Ⅰ. 서 론

대학생은 Erikson이 제시한 인간 발달 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정체감 형성 시기에 해당한다(Erikson, 1963). 정체감은(Identity)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적으로 같은 것이다', '자기 자신', '정체' 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체감은 인간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독자성, 불변성, 동질성에 대해 의식적 감각과 주관적 느낌을 갖는 것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대학생이 획득해야 하는 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다. 자아정체감은 경험과 내면의 탐색을 통해 인생관, 가치관,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대하여 자아의식을 통합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 Erikson은 대학생의 시기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자아 역할의 혼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애순, 2005). 대학생의 시기에 획득해야 할 또 다른 정체감은 진로 정체감이다(Super, 1990). 진로 정체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Holland, 1977). 대학생의 시기에 진로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으면 삶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게 되고, 진로(취업) 선택 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지 못하여 직업을 자주 바꾸는 등, 직업적 혼란에 빠지게 된다(Spokane, 1991). 따라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대학생의 시기에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발달 과업이므로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경험과 탐색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인 청년 실업률의 증가(통계청, 2016)로 인해 대학생들은 스스로 경험과 탐색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형성의 기회를 놓치고 취업준비에 매진하게 된다(잡코리아, 2013). 이렇게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의 진출한 결과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47.6%)로 연 내 25.2%의 퇴사율을 보이며(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개인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생의 시기에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술치료 분야와 심리 상담 분야에서는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박은주·박정희, 2012; 이운경, 2014; 홍희정, 2014)과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김은정, 유형근·남순임, 2015; 류경자, 2013; 정연주, 2015)을 개발하고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은 상호 작용 안에서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집단 상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상대방과 분리된 자신을 바라보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볼 때,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은 집단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현숙(2015)은 집단치료를 진행할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술 매체를 사용한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음악은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가장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다. 음악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황은영, 2012) 대학생들이 음악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며 언어보다 더 강한 호소력을 갖고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치료적 기능이 있음을 인지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서경현·박정양, 2012; 유명의, 2013). 따라서 음악의 이점을 치료적으로 활용한 음악을 매체로 한 음악치료는 대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곽현주·김영희, 2012).

음악치료의 기법 중 노래를 매개로 하는 노래심리치료는 언어와 음악 요소의 결합으로 노래의 가사나 구절이 내담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 내담자의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었던 문제로 규명할 수 있다. 또한, 노래가 치료적으로 개입되었을 때 개별화된 반응을 불러일으켜 자신을 통찰할 수 있게 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최미환, 2006). 노래심리치료의 기법 중 자신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노래 가사 분석 기법이 있다. 가사 분석의 도구로 사용되는 마인드맵은 인지 심리학에 근거하여 대상자가 생각을 정리하고 조직화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정은영, 2008). 노래 가사 분석 도구로 마인드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사에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도구로 효과적이다(김진, 2010). 이는 노래를 통해 나타난 자기 생각과 감정들을 분석하여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정체감을 형성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노래 감상하기는 음악에 요소를 통해 정서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음악 외적인 부분에 기억, 연상, 심상을 나타나게 한다. 또한,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들이 언어적 전달을 주어 내담자들이 음악에 집중하고 몰입하여 투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정현주, 2015). 노래를 개사하는 활동은 자기 생각들을 정리하여 자신만의 노래로 만들어 사고를 명확하게 한다(최미환, 2006). 마인드맵 가사 분석은 음악에 투사한 자신의 감정들을 시각화하여 선명하게 하며 또한 감정의 원천을 탐색하게 하여 깊이 있게 자신의 감정에 발생지를 찾아낼 수 있다(김진, 2010). 가사 토의하기는 노래에 대한 내용을 토의함으로 자신을 들어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노래 내용 토의하기를 통해 방어기제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감정이 드러나게 한다(정현주·김동민, 2010). 개사한 곡 노래 부르기는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고 표출하고, 확립할 수 있게 하여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을 하게 한다(최미환, 2006). 이러한 노래심리치료의 특성들을 통해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윤

다솔, 2016; 이미정, 2009; 황혜진, 2014). 이에 본 연구자는 정체감을 형성시켜야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래심리치료를 적용하여 정체감 형성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이며, 진로정체감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Super(1990)의 진로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연령 만 20세~만 26세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38명의 대학생 중 사전 면담을 통해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2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0명씩 배치하였다. 선정된 실험집단 10명과 통제집단 10명은 소집단 형태로 3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A 집단과 B 집단은 3명, C 집단은 4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20)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총계
학년	1학년	3	1	4
	2학년	2	1	3
	3학년	3	0	3
	4학년	2	8	10
성별	남	6	5	11
	여	4	5	9
학교구분	전문대학교	3	2	5
	4년제 대학교	7	8	15
음악치료 경험여부	있음	0	0	0
	없음	10	10	20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적용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술현상학적 분석을 기반 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가. 자아정체감 검사

Dignan(1965)이 ‘Ego-Identity Scale’ 개발하고 서봉연(1975)이 8개 영역에 64문항의 질문지를 재 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아청(1996)이 다차원적이고 객관적인 자아정체감 검사를 개발하고 수정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박아청(2003)은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기존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는 이전 선행연구에서 지속해서 지적된 점을 고려하여 ‘정체감 유예’와 ‘정체감 혼미’ 2개 영역을 제외하고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10개로 재정리하여 총 문항 수 60개 문항(역 채점 39문항 포함)으로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2003)이 6개의 하위요인으로 재정리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은 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점수체계는 5점 리커트(Likert)형 척도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반응양식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검사결과가 높게 나올수록 자아정체감이 강한 사람으로 자기를 타인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자각하며 자기 일관성과 정체감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본다. 이 검사지 척도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표 2〉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측정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신뢰도
주체성	•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 • 자신의 연속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를 느끼는 정도	1 7 13 19 25 31 37 43 49 55	10	.722
자기 수용성	•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정도 •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한 신뢰의 정도	2* 8* 14 20* 26* 32* 38* 44* 50* 56*	10	.788
미래 확신성	•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 •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	3* 9 15* 21 27 33* 39 45 51 57	10	.742
목표 지향성	•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 •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가 목표 를 지향하는 방향을 신뢰하고 있는 정도	4* 10* 16* 22* 28* 34 40* 46* 52* 58	10	.791
주도성	• 자신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려는 정도와 그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	5* 11* 17* 23* 29* 35* 41* 47* 53 59*	10	.685
친밀성	•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는 정도 • 집단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노출정도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10	.860
	전체		60	.912

※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나. 진로정체감 검사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Holland, Daiger,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 의 정체감 척도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한국형 VIS(Vocational Identity Scale)를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진로정체감 검사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되어있다. 채점은 역으로 실시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지 척도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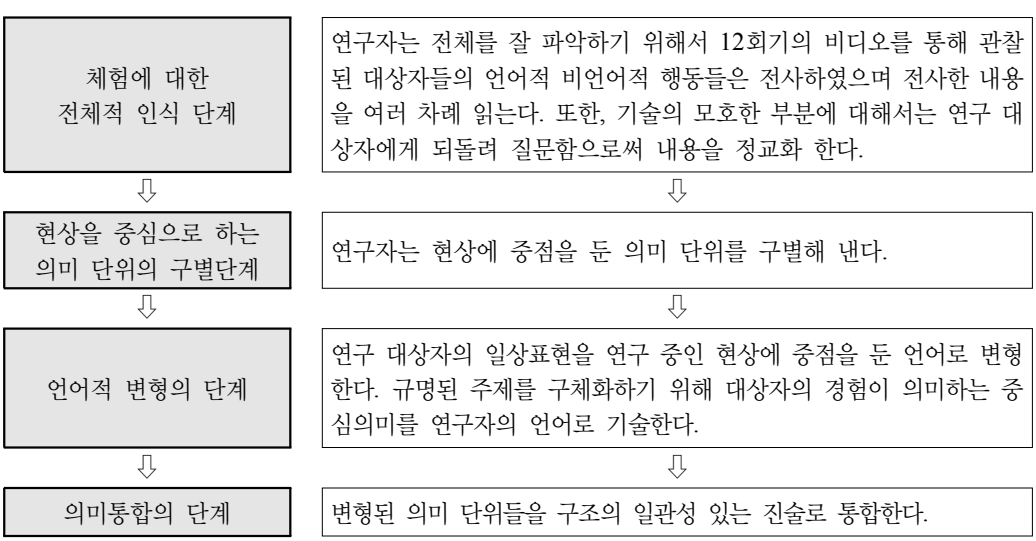
〈표 3〉 진로정체감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 이해	2* 3* 4* 7* 9* 12* 13* 15* 16* 17*	10	.692
진로 준비	1* 5* 6* 8* 10* 11* 14* 18*	8	.714
전체		18	.826

※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다. 진로정체감 검사

본 연구는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들의 12회기 비디오 촬영한 행동을 전사한 자료, 사전·사후 면담 설문지, 노래 가사를 분석한 마인드맵 그림, 노래 개사집을 내용 분석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해체화 과정과 재구성 과정이 반복되는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박성희, 1997)에 따라서 진행하였다. 기록한 자료를 보며 대상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분석 과정은 대상자의 경험에 대해 구조적 주제적 측면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권효숙, 2009). 본 연구에서는 Giorgi(1985)의 기술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따르고자 하였다. 네 개의 필수적인 단계 '체험에 대한 전체적 인식 단계', '현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미 단위의 구별단계', '언어적 변형의 단계', '의미통합의 단계'를 사용하여 분석절차를 시행하였다.



〈그림 1〉 Giorgi(1985)의 기술현상학적 분석 절차(박성희, 1997)

3.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가.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 활동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2016년 9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주간, 주 2회, 60분, 총 12회기의 세션으로 실시되었다. 12회기 프로그램의 단계는 최미환(2006)이 개발한 PEC 모델의 3단계 “준비−탐색−창작(Preparing-Exploring-Creating: PEC)”으로 구성하였다. PEC 모델의 3단계 중 준비 단계는 의미 있는 노래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탐색 단계는 자신의 과거 및 내적 갈등을 조명하고 핵심감정을 파악하게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창작 단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통찰하는 단계를 거쳐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한상임·이보드라, 2012). 단계별 목적 설정은 PEC모델 단계에 박아청(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요인을 목적으로 구성한 한상임·이보드라의 ‘자기정체감 프로그램’과 김보람·김봉환(2015)·송명숙(2015)·정보애(2013)의 ‘진로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12회기로 구성된 PEC 단계에 따른 목적배치는 준비 단계(1~2회기)에서 친밀감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탐색 단계(2~6회기)에서는 자기 이해 및 주체성 형성, 자기수용을 목적으로 자신을 탐색한다. 마지막 창작 단계(7~12회기)에서는 진로 준비 및 미래 확신, 목표 지향, 주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핵심감정을 토대로 탐색한 내용을 표출함으로 진로에 관해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프로그램 구성

회기	단계	목적	주제	노래
1	준비 단계	친밀감 형성	자기소개	선호곡
2			젊음	고백(다이나믹듀오)
3		자기이해 및 주체성형성	하루	하루 끝(아이유)
4			나	자유곡(그룹구성원이 선곡한 노래목록)
5	탐색 단계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	가족과 나	가족(울랄라세션)
6			장、단점	키작은꼬마(하하), 매력있어(악동뮤지션)
7		진로준비 및 미래확신	꿈	꿈이 뭐야(그레이), My son(유승우)
8			길	길(GOD)
9	창작 단계	진로준비 및 목표지향	가치관	인공잔디(악동뮤지션),염소4만원(옥상달빛)
10			우선순위	히어로(옥상달빛)
11		진로준비 및 주도성향상	겁、힘(진로장벽)	겁(송민호), 오르막길(정인)
12			노력	노래(랩)만들기

한 회기 프로그램은 인사 노래, 음악 감상을 통한 신체 이완, 본 활동, 마침 노래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사용된 음악은 인사 노래와 마침 노래는 치료사의 기타반주로 제공하였으며, 인사 노래와 마침 노래를 제외한 모든 음악은 음원을 사용하였다. 음원은 다양한 악기와 화성의 풍부한 음향효과를 느낄 수 있어 쉽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최영준, 2002) 이에 본 활동에서 음원을 사용하였다.

인사 노래 이후 제시된 음악 감상은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여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켜(노문환, 2016) 본 활동의 집중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활동은 노래심리치료의 기법인 '노래 감상하기, 노래 개사하기, 마인드맵 가사 분석, 가사 토의하기, 노래 부르기'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노래의 선정 기준은 각 노래의 음악적 요소를 분석하여 각 주제에 맞는 생리적、심리적 반응을 유도하는 곡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목적과 주제에 해당하는 노래가사를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Ⅲ.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cience) 21.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연구 대상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위한 맨 휘트니 유 검증(Mann-Whitney Test)과 사전·사후 점수에 대한 검증으로 윌콕슨 짝을 이룬 부호순위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 검증

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아정체감 점수 사전 동질성 검증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자아정체감 점수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평

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아정체감 영역, 모든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이 동질 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아정체감 점수 사전 동질성 검증

영역		집단	N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하위 영역	주체성	실험	10	11.55	115.50	39.50	−.79	.42
		전체	10	9.45	94.50			
	자기수용성	실험	10	10.80	108.0	47.00	−.22	.82
		통제	10	10.20	102.0			
	미래 확신성	실험	10	8.20	82.0	27.00	−1.74	.08
		통제	10	12.80	128.0			
	목표 지향성	실험	10	9.30	93.0	38.00	−.91	.36
		통제	10	11.79	117.0			
	주도성	실험	10	11.05	110.50	44.50	−.41	.67
		통제	10	9.95	99.50			
	친밀성	실험	10	11.40	114.00	41.00	−.61	.49
		통제	10	9.69	96.00			
전체	자아정체감	실험	10	11.10	111.00	44.00	−.45	.65
		통제	10	9.90	99.00			

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진로정체감 점수 사전 동질성 검증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진로정체감 점수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진로정체감 영역, 모든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이 동질 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진로정체감 점수 사전 동질성 검증

영역		집단	N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하위 영역	자기 이해	실험	10	8.30	83.00	28.00	−1.68	.09
		통제	10	12.70	127.00			
	진로 준비	실험	10	9.30	93.00	38.00	−.91	.36
		통제	10	11.70	117.00			

영역		집단	N	평균 순위	순위합	U	Z	p
전체	진로정체감	실험	10	8.75	87.50	32.50	−1.32	.81
		통제	10	12.25	122.50			

2. 자아정체감 점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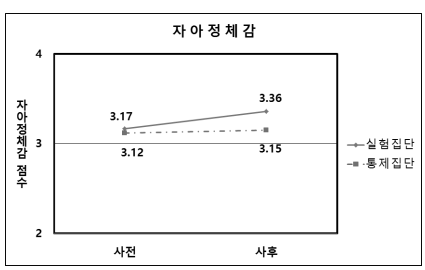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여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 전체 점수는 3.17에서 3.36으로 약 0.19 증가하였다.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을 보면 주체성 영역은 3.41에서 3.70으로 0.29점 증가하였으며, 자기 수용성 영역은 3.71에서 3.83으로 0.12 증가하였다. 미래 확신성은 2.78에서 3.05로 0.27 증가하였으며 목표 지향성은 2.95에서 3.11로 0.16 증가하였다. 주도성은 3.04에서 3.11로 0.07 증가하였고, 친밀성 영역은 3.17에서 3.37로 0.2 증가하여 *p<0.04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 친밀감의 하위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전체적인 하위영역에 사전점수에 비교하여 사후점수가 향상한 것을 의미한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점수 사전 · 사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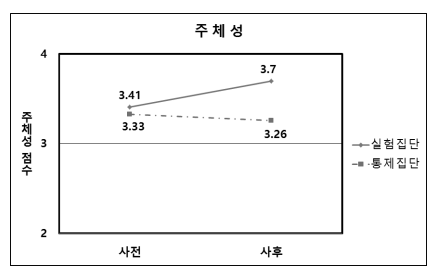
영역		집단	사전 M (SD)	사후 M (SD)	음의순위 N	음의순위 평균순위	음의순위 순위합	양의순위 N	양의순위 평균순위	양의순위 순위합	동률 N	p값
하위영역	주체성	실험	3.41 (.41)	3.70 (.64)	4	3.88	15.50	6	6.58	39.50	0	.22
		통제	3.33 (.67)	3.26 (.69)	5	5.00	25.00	3	3.67	11.00	2	.32
하위영역	자기수용성	실험	3.71 (.58)	3.83 (.76)	5	4.20	21.00	4	6.00	24.00	1	.85
		통제	3.61 (.52)	3.45 (.65)	7	5.50	38.50	3	5.50	16.50	0	.26
	미래 확신성	실험	2.78 (.51)	3.05 (.43)	3	4.50	13.50	7	5.93	41.50	0	.15
		통제	3.21 (.71)	3.27 (.63)	4	4.25	17.00	4	4.75	19.00	2	.88
하	목표 지향성	실험	2.95	3.11	6	4.00	24.00	4	7.75	31.00	0	.72

영역		집단	사전 M (SD)	사후 M (SD)	음의순위 N	음의순위 평균순위	음의순위 순위합	양의순위 N	양의순위 평균순위	양의순위 순위합	동률 N	p값
			(.50)	(.41)								
		통제	3.23 (.52)	3.29 (.48)	2	5.25	10.50	5	3.50	17.50	3	.55
위영역	주도성	실험	3.04 (.71)	3.11 (.69)	4	5.38	21.50	6	5.58	33.50	0	.54
		통제	2.93 (.72)	2.82 (.82)	7	5.21	36.50	3	6.17	18.50	0	.35
	친밀성	실험	3.17 (.56)	3.37 (.53)	2	2.75	5.50	7	5.64	39.50	1	.04*
		통제	2.30 (.67)	2.84 (.75)	6	4.17	25.00	2	5.50	11.00	2	.32
전체	자아정체감	실험	3.17 (.42)	3.36 (.42)	6	3.67	22.00	4	8.25	33.00	0	.57
		통제	3.12 (.43)	3.15 (.54)	7	5.57	39.00	3	5.33	16.00	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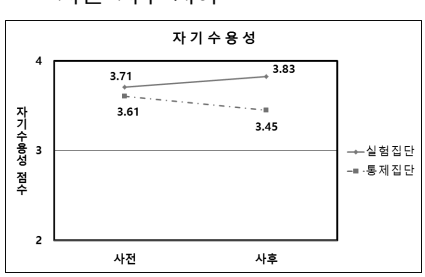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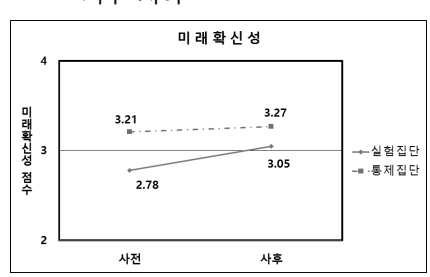
〈그림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정체감 점수 사전·사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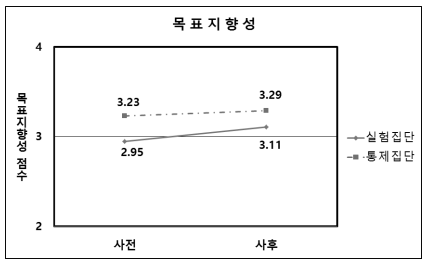
〈그림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주체성 점수 사전·사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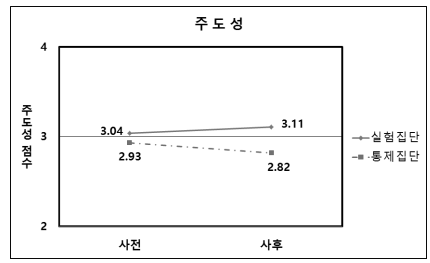
〈그림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수용성 점수 사전·사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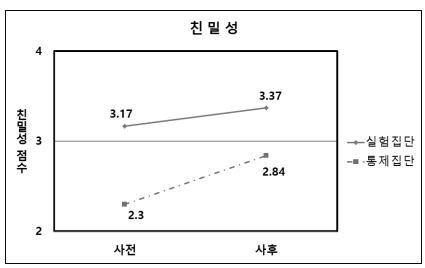
〈그림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미래 확신성 점수 사전·사후 차이



〈그림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목표 지향성 점수 사전·사후 차이



〈그림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주도성 점수 사전·사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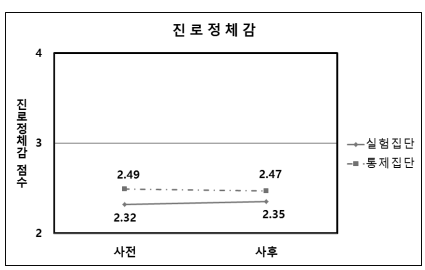
〈그림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친밀성 점수 사전·사후 차이

3. 진로정체감 점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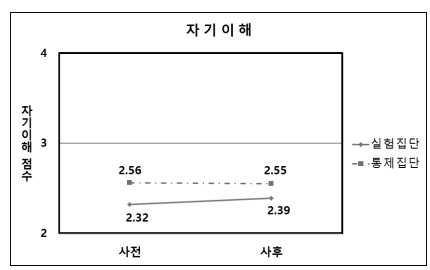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정체감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여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 진로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집단의 진로정체감 전체점수는 2.32에서 2.35로 약 0.03 증가하였다. 진로정체감 하위영역을 보면. 자기 이해영역은 2.32에서 2.39로 0.07 증가하였으며, 진로 준비영역은 2.31에서 2.31로 평균점수가 유지되었다. 이에 비교해 통제집단의 진로정체감 점수는 사전검사 2.49에서 사후검사 2.47로 0.02 감소하였다. 하위영역에서도 2.56에서 2.55로 0.01 감소하였으며 진로 준비영역에서도 2.42에서 2.39로 0.03 감소하였다. 이 결과 실험집단에 진로정체감 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때 통제집단에 진로정체감 점수와 하위영역의 점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표 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정체감 점수 사전 · 사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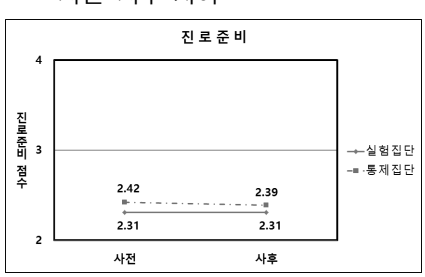
영역		집단	사전 M (SD)	사후 M (SD)	음의순위 N	음의순위 평균순위	음의순위 순위합	양의순위 N	양의순위 평균순위	양의순위 순위합	동률 N	p값
하위영역	자기 이해	실험	2.32 (.40)	2.39 (.36)	3	5.50	16.50	6	4.75	28.50	1	.47
		통제	2.56 (.45)	2.55 (.40)	4	7.13	28.50	6	4.42	26.50	0	.91
진로준비	실험		2.31 (.37)	2.31 (.50)	3	6.67	20.00	7	5.00	35.00	0	.44	.57
		통제	2.42 (.53)	2.39 (.45)	3	7.33	22.00	6	3.83	23.00	1	.95



〈그림 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정체감 점수 사전·사후 차이



〈그림 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기 이해 점수 사전·사후 차이



〈그림 1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 준비 점수 사전·사후 차이

4. 대상자 반응에 대한 내용 분석

가. 대상자 A의 행동관찰 분석

연구 대상 A는 24세 2학년 남자이다. A는 미국에서 장기간 살았으며 현재는 한국대학교에 편입한 상태이다. 한국에서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형은 미국에 거주하여 비

동거 상태이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존경하고 있으며 형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으며 거부감이 강하였다. A는 신청서에 '진로선택에도 어려움이 있고,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힘들어 신청하였다'라고 프로그램 참여 이유를 작성하였다.

대상자 A는 프로그램 초기에 타인을 의식하는 방어기제와 언어의 불일치성을 나타내었지만, 회기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힘들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었다. 또한,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해 분석내용과 언어의 표현이 일치하며 통일성 있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다. 프로그램 후기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며 프로그램 초기와 비교했을 때 많은 행동의 변화들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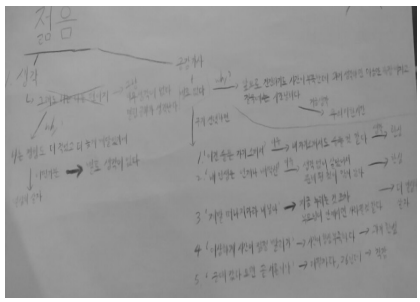
〈표 10〉 대상자 A의 언어적 표현

회기	대상자의 언어적 표현
초기	"이전에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호하고 음악 듣기를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음악을 듣고 감상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나에게는 사치이다", "노래 가사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이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중기	"과거에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죄송해요", "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것만이 고생한 부모님을 위한 보답이에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후기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과거에 더는 매여있지 않을 거에요", "나는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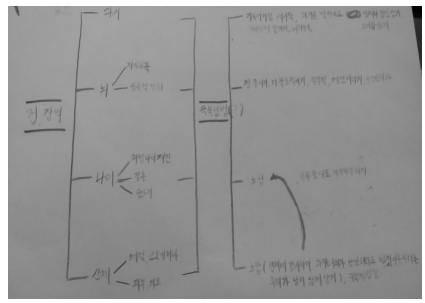
나. 대상자 A의 마인드맵 분석

프로그램 초기 세션에서 '젊음'을 주제로 분석한 내용이다.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 노래를 감상 후 공감되는 내용을 분석할 때 핵심 감정에는 '별로 생각이 없다.', '밀린 공부가 생각난다'였다. 부 가지의 제목을 '굳이 분석한다면'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내 자기소개서는 슬플 것 같다', '난 한심하다', '생각 없이 살아서 준비된 것이 많지 않다', '시간이 부족하다'의 내용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다.

프로그램의 후기 세션에서 '겁, 장벽'을 주제로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내용은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 '뇌', '나이', '신체'이며 극복방법으로 '과거를 발판으로 언제나 정신 잡기', '우선 순위화', '현재에 감사하기'의 내용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고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림 12〉 대상자 A의 초기 세션 마인드맵 '젊음'



〈그림 13〉 대상자 A의 후기 세션 마인드맵 '겁, 장벽'

다. 대상자 A가 개사한 노래 가사 내용분석

대상자 A는 자기 이해 및 주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하루'와 '나'를 주제로 탐색하여 주체를 찾아낼 수 있었다. 개사한 내용에서 A가 찾아낸 자신의 모습은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 이였으며, 그런 자신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자기 이해 및 수용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서 '가족과 나', '장·단점'을 주제로 노래를 개사하여 가족과 분리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었다. A는 가족이 자신에게 너무 큰 존재이며 감사의 존재임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타인과 비교하여 찾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단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진로 준비 및 미래 확신을 목적으로 '꿈', '길'을 주제로 탐색하였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았으며 방향성을 설정하여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는 모습이 노래 가사에 나타났다. A는 '중국어,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하였으며,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임을 가사에서 표현하며 진로에 대한 방향설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였다.

진로 준비 및 목표 지향을 목적으로 '가치관', '우선순위'를 주제를 개사한 내용에서 목표를 지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사한 가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식, 감사함, 책임감'이라는 가치를 명확하게 세우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사로 표현하며 목표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로 준비 및 주도성 향상을 목적으로 '진로장벽', '노력'을 주제로 개사한 내용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도성 있는 가사 내용이 표현되었다. 자신을 가로막는 장벽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하며 어떻게 진로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법을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사를 통해 '포기하지 않아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끝을 알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볼 거야 그냥 달려볼 거야' 등의 가사를 개사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주도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표 11〉 대상자 A가 개사한 노래 가사

회기	목적	개사한 노래 가사
3-4 회기	자기 이해 및 주체성 형성	내가 늦어서 그래/나 다방면에 손대고 있지만/무엇이든 이루고 싶은데/난 답답해/감당이 안 되서 시간이 없다
5-6 회기	자기 이해 및 자기수용	안쓰럽고 감사한 가족들/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죠/죄송하고 감사하는 나의 마음/아직 기회는 있어서 나는 행복해
7-8 회기	진로 준비 및 미래 확신	중국어 하고 싶어요/중국어 공부 할래요/세상을 돕는 사람 할래요/내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에/나의 길에 자신 있는 나를 꿈꾼다/나를 위한 꿈이다/사랑하는 사람들과 지킬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 살아간다
9-10 회기	진로 준비 및 목표 지향	실용적인 가치가 얼만지 아니/지금 내가 배움의 자세로 경청하면 걱정 없단다/바닷가에 윤이 나는 꾸준한 돌이 될거야/취미를 가진 사람이 될거야
11-12 회기	진로 준비 및 주도성 향상	젊음, 나, 가족, 힘, 겁, 장점, 단점, 꿈, 길, 가치관, 우선순위, 가능성 노력 이 모든 것, 나를 향한 여행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내게 달려있네, 무얼했던 무얼하던 모든 것은 나의 몫 나의 숙제,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야 나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머리로는 매일매일 몸으로는 내일내일 나중에는 내 자신을 원망해, 그렇지만 포지하지 않아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끝을 알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볼거야 그냥 달려볼거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대학생이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Erikson, 1968)을 수행하지 못하고 '취업'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과제로 인해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이차적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음악치료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윤다솔, 2016; 이미정, 2009; 임해주, 2009; 황혜진, 2014)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는 도구로 노래심리치료의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다

(한상원·이보드라, 2012). 또한 최근 마인드맵을 이용한 가사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연구결과가 증명되었다(김진, 2010). 이에 본 연구자는 마인드맵을 이용한 노래심리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 점수와 진로정체감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가 높게 나타났으며 12회기의 내용 분석결과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단서인 언어·비언어적 표현이 프로그램의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통계학적 결과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친밀성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자아정체감과 하위영역(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진로정체감과 하위영역(자기 이해, 진로 준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친밀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의 점수가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증가한 것을 나타냈다. 이는 그룹 내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정체성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친밀감' 영역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역임을 증명하였다. 이 결과는 한상원·이보드라(2012)의 연구에서 PEC 단계로 접근하여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자기정체감을 형성시킨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의 중요한 요인인 친밀감에 영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초기에 불명확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었다('저를 잘 알지 못해요', '자신감이 부족해요', '진로를 설정하고 싶어요'). 또한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위축된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회기가 거듭될수록 대상자들은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를 통해 핵심 가지에서 부 가지를 치며 자신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통찰하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자신감 있는 행동 변화(치료사가 노래 부르기를 권유하였을 때, 서로 먼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자신 있는 모습)가 나타났으며, 언어적 표현('예전에 나는 남들 앞에 나서지 못했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먼저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변화된 나의 모습이 놀라워요',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차근차근 나를 돌아보고 있어요', '노래 개사하는 활동은 마인드맵 분

석을 통해 탐색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요')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실험집단의 진로정체감 점수가 사전에 비교해 사후점수가 향상할 때, 통제집단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미하지 못했던 이유는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는 부분에서 효과적이었지만 진로에 대한 방향설정과 탐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진로에 대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두 가지 변인을 함께 중재하였지만, 하위변인을 포함하여 중재해야 하는 목적이 총 10개로 12회기에 목적을 수행하기에 많은 변인을 중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후 연구에서는 정체감 형성을 위한 하위 변인을 분리하여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은 시험과 취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방학 중 혹은 휴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변수들을 통제하여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끝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음악과 치료사, 그룹 원과의 친밀성을 형성시키는 것에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학생의 내면을 탐색하게 하고 자신감 있는 언어적·행동적 표현을 이끌어 주는 정체감 형성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곽현주·김영희(2012). DBT 음악치료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2), 173-195.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애순(2005). 청년기 갈등과 주체성 형성.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진(2010).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 가사 분석(Lyric Analysis) 활동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7(2), 23-45.

김현숙(2011).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정(2013).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람·김봉환(2015). 진로 탐색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8(2), 1-22.

김은정·유형근·남순임(2015).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221-241.

노문환(2016). 호흡명상이 대학생의 주관적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웰니스, 자아 존중감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경자(2013). 대학생 사이버 진로집단상담이 진로정체감과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아청(1996). 한국형자아정체감 척도 연구. 敎育心理硏究, 10(3), 67-83.

박성희(1997). 상담학연구 방법론. 서울: 양서원.

박아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3.

박은주·박정희(2012). 만다라 집단미술치료가 중학생 자아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美術治療硏究, 19(5), 1241-1261.

박소연(2016). 집단미술치료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목적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봉연(1988). 자아정체감의 정립과정. 이춘재 등 저,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서정현·박정양(2012). 대학생의 음악선호와 자기개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9),

257-279.
송명숙(2015). 이야기치료를 활용한 보드게임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명의(2013). 대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 음악을 통한 정서변화 및 음악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조형미디어학, 16(1), 141-150.
윤다솔(2016). 치료적 노래 만들기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정(2009).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의 정서 자아개념을 위한 노래만들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현(2011). 대학생 자아정체감 증진과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행복 프로그램.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운경(2014). 학교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잡코리아(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관심사'에 대한 설문조사.
정은영(2008). 마인드맵의 뇌과학적 이해와 교육적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정연주(201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및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보애(2013). H-CIP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취업불안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연주(2015).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및 진로 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준(2002). 컴퓨터 음악. 서울: 영진출판사.
최미환(2006). 노래심리치료. 정현주 (편). 음악치료의 기법과 모델(pp. 235-238). 서울: 학지사.
최현숙(2015).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이 범죄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세계문화와 역사 활용.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16). 청년 고용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한상임·이드보라(2012). 노래심리치료가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자기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합대체의학회지, 8(1), 67-83.
한국경영자총협회(2014). 2013년 신입사원 교육. 훈련 및 수습사원 관리 현황 조사분석과 시사점: 인사임금사례총람, 356-376.

홍희정(2014).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특성화고 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은영(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른 음악활동과 음악선호 조사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9(1), 1-20.

황혜진(2014). 전래동요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ignan, S.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176-183.

Erikson, E. H.(1963).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 김윤진·김인경(공역)(1990).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Giorgi, A.(1985).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장연집·박인숙·김미영·정승은(공역)(2004). 서울: 연문사.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7-261.

Spokane, A. L.(1991). *Career interven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1980). *My Vocational Situation*.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Mind Map-Based Song Psychotherapy on Ego and Career Ident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Yun, Mi-Ji · Moon, So-Young
Do-Dream Music Therapy Institute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at the mind map-based song psychotherapy on ego and career ident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under 20 voluntary university students. Students were split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for 10 people each. The experimental group has been conducted total 12 sessions which are provided 60 minutes each twice a week. Mind map-based song psychotherapy consists of 3 stages: preparing, exploring, and creating. Each program applies song psychotherapy techniques including listening music, analyzing mind mapping lyrics, discussion and making songs(lyrics). For the measurements, Korean Self-Identity Analysis and Korean Vocational Identity Scale index were assessed after pre and post-sessions. To indicate the result, reactions of participants, mind-map and lyrics of the music have been analyz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Mind Map-Based Song Psychotherapy affected the identity of experimental group toward positive way as well as be proved meaningful in intimacy area ($P<.05$) on ego identity lower factor. Although the research has not been indicated significant results on identity, proprioceptive, future confidence, goal-directedness and autonomy areas for experimental group. The post-score of this group has been enhanced compared to pre-score of its therapy program after 12 weeks. Secondly, the Mind Map-Based Song Psychotherapy technique brought positive effects on the career identity of experimental group. Even though the lower factor post-score of career identity of identification and self-understanding areas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its pre-score, it has not been indicated significant results statistically. Thirdly, the continual mind-maps on song psychotherapy program session

brought meaningful results on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activities, mind-maps, and revised lyrics in ego and career identity area. Therefore, the research concludes that its solution can affect positively to ego and career identity on undergraduate students.

Key Words: Mind Map, Song Psychotherapy, Ego Identity, Career Identity, Undergraduate Students